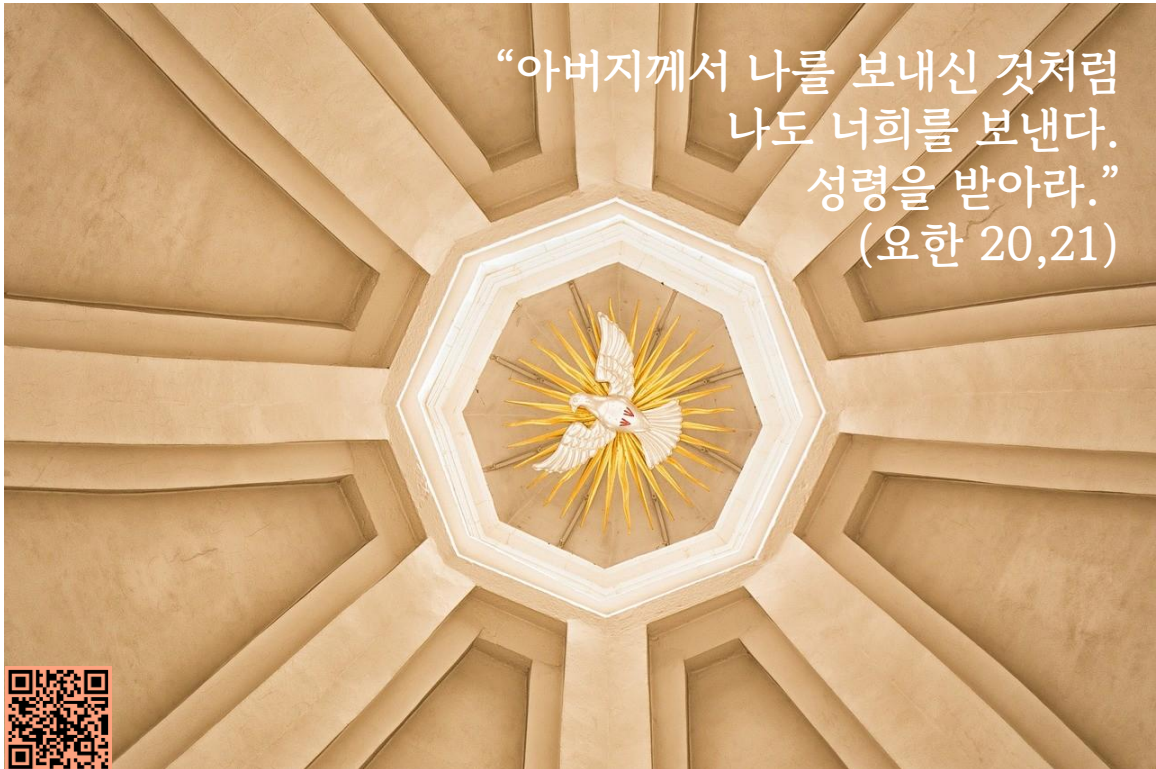


아케엠주보

Association of Korean Catholic Communities of the Middle East 중동 한인 가톨릭 공동체 연합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아라.”
(요한 20,21)



[중동 한인 가톨릭 공동체(AKCCME) 한국어 미사 시간]

수호성인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St. Francis of Assisi)

카 페 <https://cafe.daum.net/akccme>

회 장 우종관 대건 안드레아 (+971 50 940 7275)

편집/사무국장 박정인 미카엘라 (+971 56 701 7702)

발행인/전담사제 김성인 미카엘, OFM (+971 58 568 7985)

사무실 +971 2 446 1929

주 소 St. Joseph's Cathedral, Al Mushrif W24-02

P.O. Box 54, Abu Dhabi, UAE

관할지역 리비아, 모로코, 사우디 아라비아, UAE, 이란,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중동 및 북아프리카 등

• **UAE 아부다비** 성 요셉 성당:
첫째/셋째 토요일 12:00 *

• **UAE 두바이** 성 프란치스코 성당:
둘째/넷째 주일 14:00 *

• **UAE 루와이스/바라카** 성 요한세례자 성당:
둘째/다섯째 토요일 17:30

• **쿠웨이트** 성가정 성당: 매주 금요일 15:00

• **카타르** 묵주의 성모 성당: 둘째 금요일 15:00

• **이집트 카이로** 성가정 성당: 매주 금요일 11:00

* 미사가 없는 주에는 '공소 예절' 이 진행됩니다.

오늘의 전례: 성령 강림 대축일

오늘은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 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셨습니다. 저마다 받은 성령의 은사에 힘입어 세상에 기쁜 소식을 전하기로 다짐합니다.

• 제1독서

사도 2,1-11

• 입당송 지혜 1,7 참조

• 화답송 시편 104(103),1ㄱ과 24ㄱ. 29ㄴㄷ-30,31과 34(◎30 참조)

◎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하느님 당신은 참으로 위대하시옵니다. 주님, 당신 업적 얼마나 많사옵니까! 온 세상은 당신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하옵니다.◎

○ 당신의 그들의 숨을 거두시면, 죽어서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당신이 숨을 보내시면 그들은 창조되고, 온 누리의 얼굴이 새로워지나이다.◎

○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리라. 주님은 당신이 이루신 일을 기뻐하시리라. 내 노래 그분 마음에 들었으면! 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리라.◎

• 제2독서

1코린 12,3ㄷ-7.12-13

• 부속가

오소서	성령님	주님의빛	그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이	아버지	오소서	은총주님
오소서	마음의빛	가장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손님	저희생기	돈우소서	일할때에	휴식을
무더위에	시원함을	슬플때에	위로를	영원하신	행복의빛	저희마음	깊은곳을	가득하게	채우소서
주님도움	없으시면	저희삶의	그모든것	해로운것	뿐이리라	허물들은	씻어주고	매마른땅	물주시고
병든것을	고치소서	굳은마음	풀어주고	차디찬맘	데우시고	빛나간길	바루소서	성령님을	굳게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성령칠은	베푸소서	덕행공로	쌓게하고	구원의문	활짝열어	영원복락	주옵소서

•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오소서, 성령님. 믿는 이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그들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 알렐루야.

• 복음

요한 20,19-23

• 보편 지향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보호자이신 주님, 주님의 교회에 성령을 보내 주시어, 세상 가운데에서 참사랑을 실천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소서.

2. 이산가족과 북한에 고향을 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 가족과 고향을 마음에 품고 살아온 이산가족과 북한에 고향을 둔 이들을 도와주시어, 남과 북이 화해하고 이산가족의 만남을 다시 이어가게 하소서.

3.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치유자이신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보살피시어, 참을 수 없는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루 빨리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4. 중동 한인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공동체 안에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형제들을 보살피 주시어, 그들에게 어려움을 헤쳐 나갈 힘을 주시고, 저희가 복음을 실천하며 형제들에게 필요를 기쁘게 나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 영성체송

사도 2,4.11 참조

[아캠] 전담 사제 휴가 일정

아캠 전담 사제이신 '김성인 미카엘 신부님' 휴가 일정입니다.

- ▶ 여름 휴가 : 6월 16일(월) ~ 7월 17일(목)
- ▶ 로마 순례 : 7월 20일(주일) ~ 8월 4일(월)
(남아라비아 대목구 대표로 세계 청년 대회
사전 준비 회의 및 로마 성지 순례)



※ 이 기간 중에도 아부다비 / 두바이 공동체의 한인 '미사'는 지속됩니다.

※ '아캠 주보'는 이 기간 중 발행되지 않으며, 연중 제19주일 주보(8월 10일, 219호)부터 발행이 재개됩니다.

[두바이] 공동체 전체 성모성월 묵주기도

- ▶ 기 간 : 5월 12일(월) ~ 5월 31일(토) 20일간 19시
- ▶ 방 법 : 아캠 공용 줌을 통한 온라인 기도 모임



🌸 성모성월을 묵상하며 공동체 전체가 바친 묵주기도: 총 1,205 단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를 권하시는 티 없이 맑고 깨끗하신 성모 마리아님, 송지연 소피아입니다.

저는 지난날 당신을 그저 예수님의 어머니로만 여기며 지내온 무지함을 이제서야 깨달아 반성하며 작년 9월 파티마 성지에서, 온전히 저의 어머니가 되어 주심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성지순례 이후 그동안의 나태함과 무지함, 잘못된 죄를 회개하며, 저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성모님의 군대 레지오 마리아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묵주를 들고 어머니와 함께, 주님께 묵주기도를 바칠 때에 저 혼자 하는 묵주기도가 아닌 당신과 함께하는 신비로움과 따뜻함을 느꼈으며, 알 수 없는 뜨거운 눈물을 경험하였습니다. 성모님을 통하여 저에게 베풀어주신 끝없는 사랑, 하느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올 어머니여 저희의 위로자이시여, 오늘 저희는 당신께 꽃과 불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 사랑 희망이시여,

우리 자신을 드리듯이 당신께 꽃과 불을 드립니다.

우리가 당신께 꽃을 드릴 때에 꽃잎 속에 담긴 우리의 소명들을 헤아리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보이지 않는 눈물과 한숨을 받아 주소서.

우리가 당신께 촛불을 드릴 때에 불속에 태우는 모든 이야기들, 세상에서 차마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고뇌와 절망 또한 받아주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주님 안에서 평화롭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시고 행복을 빌게 하소서.

오늘도 묵주를 들고 당신과 함께 주님께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저희의 어머니시여.



2025년 성모님께 드리는 편지
(두바이 공동체 송지연 소피아)

[아부다비] 남아라비아 대목구 주교님 사목 방문



- ▶ 기 간 : 6월 5일(목) ~ 6월 9일(월)
- ▶ 장 소 : 아부다비 성 요셉 주교좌 성당
- ▶ 미 사 :  의례와 기념 미사 (6월 5일, 목 18시 30분)
 감사 미사 (6월 8일, 주일 18시)

[아부다비] 복사단 회합

- ▶ 일 시 : 6 월 6 일 (금), 10시
- ▶ 장 소 : 사디얏 teamlap 전시관



[아부다비] 견진성사



Sacrament of Confirmation

- ▶ 일 시 : 6 월 6 일 (금), 19시
- ▶ 장 소 : 아부다비 주교좌 성당
- ▶ 대 상 자 : 김현준 라파엘 / 백상현 레오 / 백소현 첼리나 / 이동건 도미니코

※ 성사를 통해 성령을 충만히 받아 하느님의 믿음과 사랑 안에서 견고한 신앙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대상자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교황님 6월 기도 지향

6월: 세상을 향한 연민

우리가 저마다 예수님과 맺는 인격적 관계에서 위로를 얻고, 예수 성심께 세상을 향한 연민을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쿠웨이트 공동체> 본당 Grand Rosary Night



5월 28일

<두바이 공동체> 상반기 여성 총구역 결산 모임



6월 3일

구원의 완성과 교회의 시작

성령 강림 대축일로 부활시키는 끝난다. 성령 강림으로 수난과 부활의 인류 구원의 신비가 완성된다는 것이다. 이 신비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과 함께하는 교회 안에서 종말까지 계속된다.

■ 주님 승천 대축일



예수님의 승천, 1305, 조토 디 본도네 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째 되는 날 하늘로 올라가셨음을 기념하는 날이다. 한국 교회는 이날을 부활 제7주일로 옮겨 지낸다. 그리고 교회는 이날을 홍보주일로 정하여 대중 매체를 통한 교회의 선교 사명을 기억하고 독려한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느님 나라에 관해 말씀해주시고 그들에게 강복하시며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로부터 10일 뒤에 사도들은 성령을 받는다. 신약에서 주님 승천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강복하시며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서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줄곧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지냈다.”(루카 24,51-53)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 오르셨는데, 구름이 감싸여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다.”(사도 1,9-10)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유는 궁극적으로 하느님 오른편에 오르기 위함이다. 즉 주님 승천은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의 모든 여정을 마치고 하느님 아버지의 권능에 찬 본래의 삶으로 귀환하셨음을 의미한다. 또한 승천은 재림의 시작이다. 우리보다 먼저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서, 당신 몸의 지체인 우리가 언젠가는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시기 때문이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666항). 결국 강생과 부활, 승천은 서로 연결됨으로써 예수님의 승천으로 인간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다.

■ 성령 강림 대축일



성령 강림, 1545, 티치아노 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오순절)이 되던 날에 사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교회는 주님 승천 후 9일 기도를 바치며 성령 강림을 기다린다. 또한 이날은 교회 설립 기념일이기도 하다.

성령 강림 이후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백성에게 선포하기 시작했고, 교회는 이를 이어받아 세상 끝까지 복음을 선포하여 하느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구현할 사명을 실천한다. 이러한 교회의 활동은 성령께서 주신 능력과 힘에 바탕을 둔다.

사도들에게 내려온 성령을 신앙인들은 세례와 견진성사를 통해 체험한다. 성령께서는 세례성사로 우리를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게 하시며, 견진성사를 통해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며 하느님의 자녀임을 삶으로 고백하고 증거하며 살도록 한다.

특히 교회는 성령 강림으로 우리가 성령의 7가지 은사[슬기(지혜), 깨달음(통찰), 일깨움(의견), 굳셈(용기), 앎(지식), 반동(공경), 두려워함(경외)]을 받고, 이를 잘 보존 관리하여 9가지 열매[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를 받는다고 가르친다.

성령 강림 대축일로 부활 시기는 끝나고 연중 시기가 시작된다. 성령 강림으로 수난과 부활의 인류 구원의 신비가 완성된 것이다. 이날 미사 때 사제는 성령의 사랑과 불허 모양을 상징하는 빨간색 제의를 입는다. 복음환호송 전에 부속가를 바치고 부활 팔일 축제 기간과 마찬가지로 파견의 말 뒤에 “알렐루야”를 두 번 반복한다.



이원정 유스티나 (두바이 공동체)



우리들의

<묵상과 나눔>



“성당 나와 보실래요?”

평소 친하게 지내는 헬레나 자매님이 전에도 여러 번 물어 보셨으나 용기가 없어 거절했던 나였다. 가톨릭은 내겐 미지의 세계였다. 어릴 적, 가톨릭 신자였던 친정어머니는 홀로 성당에 다니셨는데 어린 마음에 나도 데리고 가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다. 성인이 되어서는 독실한 신앙인인 지인들이 공동체에 헌신하는 모습에 압도되어 나는 안되겠고 마음속으로 접기도 하였다. 그러던 내가 절친인 스텔라 자매님이 성당에 나가신다는 얘기에 얼렁뚱땅 물어 가게 된 것이다.

고백하건대 가장 큰 이유는 수험생 자녀를 둔 어미의 조금은 숙된 욕망에서 시작되었다. 마지막 학년인 아이에게 부모로서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 기도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알팍하지만 절박한 마음... 부끄럽지만 그렇게 예비신자가 되어 미사에 참석하면서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몇 주 되지도 않아 지병이 있으셨던 아버지께서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전화를 받았다. 멀리 떨어진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가톨릭 기도문을 유튜브에서 뒤져 따라 읊으며 기도하는 것이었다. 아버지의 고통을 줄여달라고 없애 달라고 울며 기도하였다. 쇠약해지신 아버지께서는 결국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소천하셨지만 사랑하는 아버지와 이 이별에 이 미숙한 기도가 큰 의지와 위로가 되었다.

또한 수험생을 위한 100일 기도를 드리면서, 성경의 구절과 기도문에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위로받고, 의지하게 되

었다. 처음에는 더듬거리던 묵주기도도 한 달이 지나니 술술 흘러나왔다. 마음 한편에 숙제처럼 귀찮을 때도 있었지만 마치고 나면 마음이 충만해지는 것이었다. 나에게 부모로서 가장 어려운 숙제가 ‘내려놓음’ 이었는데 이 또한 설득을 해주시는 하느님이셨다. 결국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서야 내려놓음이 가능한 부족한 나이지만 말이다.

세례를 위한 온라인 교리 교육, 신부님께서 직접해 주신 온라인 견진 교육은 가톨릭에 대해 전반적으로 배울 수 있는 알찬 수업이었다. 격주로 있는 구역모임도 신앙에 대한 견해도 들을 수 있고, 친교도 할 수 있어 좋았다. 또한 미사를 통해 좋으신 하느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위로와 치유를 받고 있다. 예비신자였던 내가 세례성사를 통해 하느님의 자녀로 거듭나 비로소 진정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음이 꿈만 같고 영광스럽다. 이 모든 과정을 도와주신 미카엘 신부님, 세실리아 자매님, 헬레나&마리아 대모님, 함께 세례 받은 스텔라 자매님, 그리고 축복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시작인데 벌써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다. 속물스러운 마음으로 시작한 내가 부끄럽게끔 더 큰 가르침과 위로를 주신 하느님. 앞으로 하느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받은 은혜를 사랑으로 나누며 살아가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도록 노력해야겠다.



윤주희 스텔라 (두바이 공동체)



이 은총의 순간을 허락해 주신 하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세례를 준비하는 동안 애써주시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세례를 준비하면서 교육을 받는 동안 김성인 미카엘 신부님께서 해 주신 말씀 중 하나가 제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네가 가진 것, 네가 가진 능력은 오로지 너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마치 뒤통수를 맞은 듯 머릿속이 하얘지며 멍해졌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내 것’이라 여겨왔던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오로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예전 직장 생활을 하던 시절, 친한 학교 선배가 매달 빠짐없이 십일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며 신입사원으로서 이것저것 사고 싶은 것도 많았던 저는 궁금한 마음에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선배는 ‘내 것의 10 중 1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게 9를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했지만, 당시에는 그 말이 크게 와닿지 않고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견진 교육 때 신부님 말씀대로 내가 가진 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닌 작게는 가족과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니, 마음 편안하게 그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으며, ‘나눔’이 감사의 표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 오로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특별히 뛰어나지는 않지만, 때때로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며 가족을 바라본 적이 많았습니다. 내가 가진 기준과 능력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 기준으로 그들을 판단하고 부족하다고 느끼고, 조급해하거나 답답해하며 그들을 힘들게 했던 제 모습이 떠올라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작은 능력 하나하나가 다른 이들을 이해하고 돌보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며,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닌 가족과 공동체를 위한 것임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은 하느님의 은총이며, 그것은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기 위한 것임을 마음 깊이 새깁니다. 이 마음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수 성심 성월 기도

예수 성심께 천하 만민을 바치는 기도



- 지극히 어지신 구세주 예수님,
주님 앞에 꿇어 경배하오니
저희를 굽어 살피소서.
 - 저희는 이미 주님의 백성이오니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하나 되고자
오늘 저희를 주님의 성심께 봉헌하나이다.
 - 주님을 일찍이 알아 모시지 못한 사람도 많고
주님을 알고도 주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주님을 떠난 사람도 많사오니
 - 지극히 인자하신 예수님,
이런 사람들도 다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성심께 이끌어 들이소서.
 - 주님께서는 목자이시니
주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을 보살피시고
이미 주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굶어 죽는 일이 없게 하소서.
 - 웅졸한 고집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나
불목하여 갈린 사람들도 부르시어
저희가 모두 같은 신앙을 고백하며
한 우리에서 한 목자 밑에 살게 하소서.
 - 굶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고
비천한 이를 들어 올리셨네.
 - 주님, 거룩한 교회를 평화의 깃발로 세우시고
모든 나라에 참된 평화를 주시어
온 세상 어디서나 입을 모아
저희를 구원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히 찬미와 영광과 흠송을 드리게 하소서.
- ◎ 아멘.
- 예수 성심
 -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소서.



부활 삼종 기도

(주님 부활 대축일 ~ 성령 강림 대축일)

- 하늘의 모후님, 기뻐하소서. 알렐루야.
- 태중에 모시던 아드님께서, 알렐루야.
-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 저희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 주소서, 알렐루야.
- 동정 마리아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소서.
알렐루야.
-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선 . 생 . 님 . 궁 . 금 . 해 . 요 .



<20> 부활초가 사라졌어요

미사 후 뒷정리를 하는데 제대를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던 학생이 묻습니다.

“선생님, 제대 옆에 있던 큰 초가 사라졌어요.”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초의 행방이 몹시도 궁금했나 봅니다.

“부활초가 없어서 궁금했구나. 부활초에 대해 자세히 알려 줄게. 부활초는 부활 성야 전례 때 예식을 하면서 어둠, 죽음에서 빛과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의 부활과 사랑을 드러 낸단다. 부활초는 불 축성을 하는데, 활활 타오르는 불은 하느님이 나타나 보이심을 뜻하며, 영원하신 삼위일체의 거룩함을 묘사하며, 신성과 인성의 결합을 의미한단다.

그리고 사제나 부제가 부활초를 들고 ‘그리스도 우리의 빛’을 외치는 것은 죄악과 어둠을 물리친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타내지. 다시 말해 부활초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단다.”

그 학생이 다시 “부활초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그럼 글자에도 의미가 있는 건가요?”라고 묻습니다.

“물론 의미가 있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또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느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묵시 1,8)라고 말씀하신 ‘영원’을 표상하는 알파(A)·오메가(Ω)를 표시하며 두 글자 사이에 그해의 연도를 쓰 거란다.”

전례에 사용되는 것은 다 의미가 있음을 알아챈 학생이 이번에는 부활초에 꽂혀있던 향 덩이가 기억났는지 다시 묻습니다. “부활초에 빨간 것이 꽂혀 있던데 그건 뭘 의미하나요?”

“그것은 ‘향 덩이’라고 하며, 향 덩이란 못에 빨간 초를 녹여 덩어리로 만든 것이지. 향 덩이 5개를 꽂는데,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신 십자가 표시에 꽂는 것이지. 못 박힌 자리인 예수님의 양팔과 포개진 두 발 등 네 군데, 그리고 창에 찔린 옆구리까지 다섯 군데를 ‘오상’이라 하지. 그래서 부활초에 십자가 모양을 새기고 오상을 상징하는 향 덩이 5개를 꽂는 거야.”

“그런데 부활초는 어디 갔어요?”라며 부활초 행방을 재차 묻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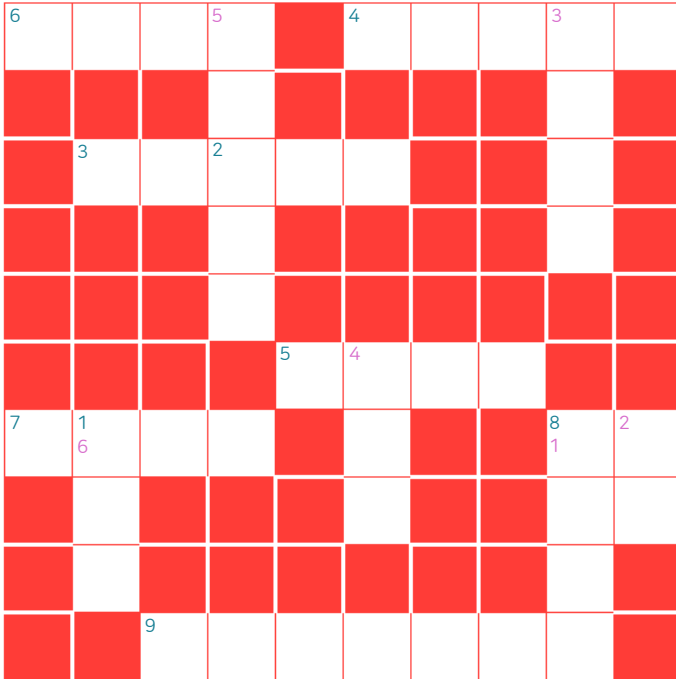
“지금은 연중 시기를 지내고 있기에 부활초를 제대 옆에 켜지 않는 거란다. 부활초는 그해 주님 부활 대축일 전 부활 성야 빛의 예식 때 축복해서 다음 해에 초를 축복하는 부활 성야 빛의 예식 전까지 사용하는데, 부활 시기(주님 부활 대축일~성령 강림 대축일까지 50일)에는 제대 옆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부활초를 같이 켜는 거란다. 그리고 잘 보관했다가 세례성사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부활초를 켜고 부활초에서 불을 가져다 세례받는 이에게 전해줄 초에 불을 붙여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십시오’라는 말과 함께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권고하며 전해주지. 장례 미사 때에도 부활초를 켜는데,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부활’이라는 의미에서 부활초를 켜는 거란다.”

부활초가 부활 성야 전례에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4~8세기경이었으나, 부활 전례에 본격적으로 되살아난 것은 1955년 전례 개혁부터입니다. 부활 시기가 끝난 다음에도 세례성사 나 장례 미사 때 부활초를 밝히도록 한 것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년) 전례 개혁 이후부터입니다.



가톨릭 평화 신문, <박모란 교리 교사의 교리, 궁금한 건 못 참지> 편집

가로 세로 낱말 퀴즈



< 세로 퀴즈 >

- 성주간의 날 중 이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로 주님의 죽음을 묵상하며 금육과 단식을 한다.
- 성모 마리아나 천사 또는 성인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은혜를 구하는 기도. '비오니, 성모님의 ○○를 들으시어 저희가 ..'
- 성모 마리아께서 겪으신 7가지 슬픔과 고통.
- 파티마에서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발현을 여러 차례 목격한 가르멜회 소속 수녀. 성모 발현과 천사 발현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성모님의 메시지에 평생을 봉헌했다. 2023년 6월 22일 가경자로 선포됨.
- 프랑스의 성녀. 루르드 성모님 발현의 시현자로 이후 성모님 말씀대로 많은 오해와 고초를 겪었으나, 수녀회에 입회해 특별한 은혜와 주님의 각별한 사랑에 감사하며 순명하는 삶을 살았다. 과거 한국 천주교에서는 '벨라렛다'로 표기.
- 부활 시기의 마지막 날. 예수님의 부활 이후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이 강림하셨기에 이 날을 성령 강림 대축일로 기념함.

< 가로 퀴즈 >

-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알파이며 ○○○이고,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시작이며 마침이다"(묵시 22,13). 이 상징은 주님 부활 대축일에 사용되는 초에 새겨진다.
- 로마의 유다 총독 본시오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써 붙인 명패인 I.N.R.I.의 뜻은 '유다인들의 임금 ○○○ 사람 예수'.
- 구원자에 대한 환호로 "주님 비오니, 저를 구원 하소서!"라는 뜻. 높음에서 ○○○.
- 교회 전례에서 가장 성대하게 거행되는 날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밤을 기념하는 이날 예식은 빛의 예식, 말씀 전례, 세례 전례, 성찬 전례로 구성된다. 사순시기 절제했던 알렐루야를 노래한다.
- 십자가의 종류 중 하나. ○○○○ 십자가.



그리스 십자가 형태이면서 네 귀퉁이에 보다 작은 그리스 십자가가 하나씩 더 붙어 있는 모양.

- 로마 가톨릭교회의 교황 선출 선거 제도. 교황 선출 비밀 회의. '열쇠로 잠근 방'이란 뜻을 지님.
- 제267대 교황이 선출되었다. 교황 ○○ 14세.
- 기록된 하느님 말씀인 성경과 달리, 그리스도와 사도들에게 위탁하신 하느님 말씀이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것. 전해지는 하느님 말씀.
-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심을 기념하는 날. 전통적으로 주님 부활 대축일로부터 40일째 되는 부활 제6주간 목요일에 지내지만, 한국 천주교회에서는 부활 제7주일에 옮겨 지내고 있다.

※ 응모 방법 및 마감

: 6월 11일 정오(UAE 기준)까지 아캠 사무국으로 연락 주십시오. (☎ ID : ellajoy1726)

※ 정답 및 정답자/당첨자 발표

: 218호(다음주) 아캠 주보에 공지

※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한 분께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퀴즈 참고 주보: 207호 ~ 217호

2025년 5 월 아캠 회계보고

(단위: AED/소수점 버림)

구분	수입			지출			잔액
	내용	금액	비고	내용	금액	비고	
아캠 기금	전월 이월금	17,516	(2025년 4월 이월금)	성무 활동비	2,000	(아캠 전달 사제: 5월)	
	후원금	단체		구매/기타	16	(해외 송금액 입금 수수료)	
		개인	1,500	가난 기금	445	(5월 아캠기금 5% 적립)	
	납입금	아부다비	1,200				
		두바이	1,200				
		루와이스/바라카	2,000				
		카타르	3,000				
	기타 수입금 (이자 및 기타)						
		26,416			2,461		23,955
가난 기금	전월 이월금	14,626	(2025년 4월 이월금)				
	모금액	단체	900				
		개인	1,000				
		16,526			0		16,526
	수입 합계	42,942		지출 합계	2,461		40,481

< 아캠 후원금 상세 내역 >

개인: (1) 박효진 세실리아 (2) 김화영 라우렌시오

개인(가난기금): (1) 박효진 세실리아 단체(가난기금): 두바이 주일학교 친구들

아캠 기금 납부 및 후원 안내

아캠 기금은 아캠 규정 '제15조 거룩한 직무를 위한 비용'에 따라 전담 사제의 성무활동비, 사무국 운영 및 한인 공동체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되며, 중동지역 내 한인 공동체들의 '자발적 납부와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 인터넷 뱅킹 접수

Account Holder Name: JEONGIN PARK
Bank : Emirates NBD / Account Number: 0999501772101
IBAN: AE52 0260 0009 9950 1772 101
(송금시 reference에 이름 기재 부탁드립니다.)



 ARAKO 두바이 한인 부동산 Sale / Rent/ Off Plan 상담  오픈챗  최은정 셀레나 (055. 360. 0733)	SUZE 수제과일청 각종소스류 100% Handmade 100% Fresh Fruits 100% Organic Sugar 홈카페 / 내,외국인 선물 / 단체주문 박혜정 안젤라 (058. 580. 2814) /  : angela7204	SGE 두바이삼성학원 강남 삼성학원 두바이 분원 - 아부다비/두바이 국제학교 - 현지 대학 입학 대행 서비스 - 특례 입시 전문 - 성인반 영어 프로그램 정미숙 라파엘라 (+971) 50 461 3991 /  : 두바이삼성학원
---	--	--